

# 주가 재상승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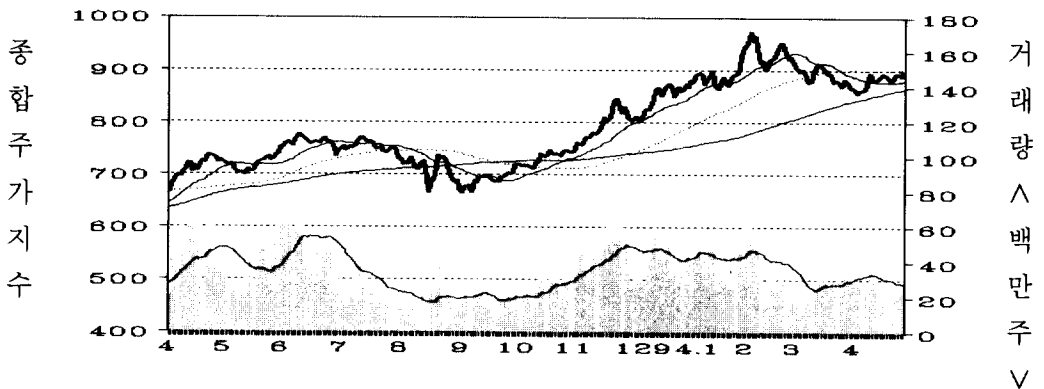
朴鍾坤\*

## 혼조 장세 속에 시장 주체 변화

4월은 지수 880을 전후한 매매 공방이 지속되었다. 뚜렷한 주도주가 부각되지 않아 월초에는 실적 호전 중저가주의 개별 상승이 이어지고, 간헐적으로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설에 따른 블루칩과 저PER주, 지방 민방 관련 재료주, 자사주 매입 관련주에 순환적 매수세가 형성되는 양상이었다. 중반 이후에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대형 우량주가 장세 분위기를 밝게 하면서 상승을 선도하였다.

월 후반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의 주체 세력이 그 동안의 일반인 중심에서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그동안 매도 일변도의 투자 행태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중반 이후 서서히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고, 국내 주식 시장이 충분히 조정 받았다는 인식과 향후 우리 경제를 밝게 전망하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외국어대학 석사, 증권·금융 전공

## 재상승 기대

지난 2월 이후 약 3 개월 간의 휴식을 취한 증시는 5월 이후 재 상승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중에는 조흥은행을 비롯하여 투금사 및 일부 제조업의 증자로 유상 물량이 총 5,200억 원에 이르러 4월보다 2,000억 원 규모가 많다. 그러나 유상 증자 물량은 5월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며, 한국 통신과 같은 정부 지분 매각은 4월을 고비로 일단 마무리되어 5월부터는 증시 공급 측면에서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증권 업계의 주총 마감과 함께 증권사 상품 한도(현재 4,600억 원) 및 신용 한도(현재 1,400억 원)가 늘어나고 외수 펀드의 본격적인 매입과 상장사들의 자기 주식 취득, 일본계 자금의 유입 등이 시작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증시 수요 부문의 확대로 주가의 강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증시는 약 3 개월의 등락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15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한 기술적 분석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우리 증시는 지난 3 개월간 충분한 조정을 거쳤으며, 주가가 150일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와 평행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에서도 주가의 재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자

증시가 충분한 조정을 거친후 재 상승할 때 가장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은 어떠한 종목이 재 상승을 리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본 란에서 주장해 온 것은 현재 우리 증시는 국제화, 선진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량주 및 자산주의 상승이 두드러질 것으로 주장해 왔다. 이는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증시가 성숙화되는 과정에서는 소위 초우량주로 꼽히는 주식의 가격이 상당히 오랫동안 주식 시장을 리드해 온 것을 볼 때 우리 시장에서도 우량주 및 자산주가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의 포트폴리오도 기본적으로는 성장주 및 자산주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정통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재료와 관련된 주식이 더욱 돋보인다.

최근 증시의 호재성 재료로는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와 일본계 자금 유입 및 SOC 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는 우리 증시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당초 정부에서는 연말이나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 선진 외국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가시화되고 있어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